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⑤:50 웰컴 투 돈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박근혜정부의 청사진 〈신임 장관에게 듣는다〉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	05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00 다섯남자의 오 머니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당신의 여자〉
9	00 논설주간 세상보기 황호택의 눈을 떠요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삼생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신문으로 보는 세상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빨간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뉴스
11	00 박종진의 쾌도난마 스페셜	00 러브 인 아시아(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월화드라마 〈직장의 신〉(재)	00 브라보 멋진 인생	00 SBS생활경제 40 KBC생활뉴스
12	20 뉴스와이드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12뉴스 30 전라남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1	20 그 여자 그 남자(재)	00 휴스턴 국제영화제 수상작 시리즈 〈김정일〉		20 MBC 네트워크 특선 〈다시 찾아야 할 우리의 맛〉	
2	3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을 행복아카데미	10 세계는 지금(재)	1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40 이언경의 직언직설	10 콘서트 필2 50 아름다운 사람들(재)	00 KBS 뉴스타임 1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00 MBC 3시 뉴스 10 키즈 사이언스 베스트	10 서울 디지털 포럼 10주년 특선 베스트 연설
4	50 김광현의 탕탕평평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완전 정복〉	00 엘리먼트 헌터(재) 30 TV유치원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키즈 CSI 과학수사대	00 아이엠 몽니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구름빵 30 100년의 가게(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면대면	05 씨네포트
7	10 웰컴 투 돈월드(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자룡이 간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가족의 탄생〉
8	20 박종진의 쾌도난마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2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 50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특별기획 〈구암 허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베란다쇼	
10		00 가요무대 55 베이스볼 매거진 야호	00 월화드라마 〈직장의 신〉	00 월화특별기획드라마 〈구가의 서〉	00 월화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
11	00 신데렐라 TV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0 공감다큐 〈그 곳〉	20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①:20 갈데까지 가보자(재)	00 KBS 글로벌 24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0 KBS 뉴스 10 네트워크 문화특선 〈이한철의 올댓뮤직〉	40 해외특별기획드라마 〈초한지〉	20 MBC 뉴스24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MBC가요베스트 ①:55 바비킴·이루마의 TV예술무대	50 나이트 라인 ①:10 SBS골프

EBS

06:00 건강한 아침
06:10 한국기행
06:30 나의 성공비결
07:00 곤
07:15 꼬마거북 프랭클린
07:30 마야의 모험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08:35 로보카 폴리
08:50 숲 속 친구 파파롤라
09:00 방귀대장 뿡뿡이
09:15 코코몽2
09:30 캐니멀
09:40 팅기팅기 이야기
09:50 지구를 지켜라
10:10 세계테마기행 〈삼국지 촉한의 땅, 사천 1부 촉한의 중심, 성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부모 〈아이의 숨은 가능성 찾기〉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다큐프라임 〈과학대기획-다섯개의 열쇠〉
13:05 EBS 스페이스 공감 1
14:05 영어유치원 요! 가바가바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5:00 꼬마기사 마이크
15:10 쿵쿵짝짝 라라
15:30 꼬마거북 크랭클린
15:45 마야의 모험
16:00 딩동댕 유치원 1~2(재)
16:20 캐니멀
16: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6:45 숲 속 친구 파파롤라(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0 로보카 폴리(재)
17:2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7:4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4
18:30 곤
18:45 미앤마이 로봇
19:00 EBS 뉴스
19:20 진중기획
19:25 지식채널e(재)
19:30 달라졌어요
20:20 요리비전
20:50 세계테마기행 〈최후의 열대우림, 보르네오 1부 신이 내린 축복의 땅, 키나발루〉
21:30 한국기행〈산정〉
21:50 EBS 다큐프라임 〈인간 탐구 욕망, 호모컨슈머〉
22:45 하늘에서 본 한반도
23:15 다큐10+
24:05 밴드 오브 브라더스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일반사회〉
00:50 내신 6감 〈수학(상)〉
01:40 〃 〈지리〉
02:30 포스 〈화법과 작문〉
03:20 〃 〈독서와 문법〉
04:10 〃 〈수학Ⅰ A형〉
05:00 〃 〈수학Ⅰ B형〉
05:50 〃 〈미적분과 통계기본〉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독해의 기본(1)〉
07:30 〃 〈Basic Grammar〉
08:20 탐스런 〈법과 정치〉
09:10 〃 〈동아시아사〉
10:00 〃 〈경제〉
10:50 〃 〈강봉균의 한국지리〉
11:40 〃 〈강승희의 윤리와 사상〉
1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3:00 탐스런 〈박봄의 사회문화〉
14:00 기출플러스 〈독서〉
15:00 〃 〈문학〉
16:00 〃 〈수학Ⅱ&적통&기백〉
17:00 〃 〈영어-독해편〉
18:00 EBS 수능특강 〈국어A형〉
19:00 〃 〈국어B형〉
20:00 〃 〈영어A형〉
21:00 〃 〈영어B형〉
22:00 〃 〈물리Ⅰ〉
23:00 〃 〈적분과 통계〉
23:50 지식채널e
23:55 배움너머

EBS플러스2

07:00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07:30 EBSe 생활영어
08:00 한자능력 검정 시험 대비 강좌
08:30 인터넷 윤리 자격시험 대비 강좌
09:10 TV중학 1학년 〈국어①②〉
09:50 〃 〈수학①(상)〉
10:30 중학개념 끝장내기 〈세계사〉
11:10 TV중학 〈사회①〉
11:50 TV중학 2학년 〈영어2-1〉
12:30 〃 〈문학2〉
13:20 동물일기
13:50 키득키득 실험실
14:00 직장학 개론
14:40 세계의 교육현장
15:10 생물이 생생!
15:20 초등 내공남냠 〈국어 3-1〉
15:50 〃 〈국어 4-1〉
16:20 〃 〈국어 5-1〉
16:40 〃 〈국어 6-1〉
17:20 초등 개념 잡기〈수학〉
18:00 중학 학습비법 특강 〈국어〉
18:40 〃 〈사회〉
19:20 꾸러기 천사들
19:50 떼굴떼굴 미술상자
20:00 나의 첫 번째 영어쓰기 노트
20:40 초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1:20 등업신공 〈수학①(상)〉
22:00 중학 3학년 퍼펙트 체크업〈수학 3-1〉
22:40 TV중학 3학년 〈영어3-1〉
23:20 〃 〈문학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9일(음 3월 20일 乙丑)

子 36년생 기쁨의 자리에 함께할 수다. 48년생 인연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크다. 60년생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72년생 용기 있는 이만이 행운을 잡는다. 84년생 가려서 사귀지 않으면 후회하리라. 행운의 숫자 : 07, 29

丑 37년생 그 자체로써 의미가 있다. 49년생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61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속수무책이다. 73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납득하리라. 85년생 본심을 제어할 수 있는 성숙함을 보일 때다. 행운의 숫자 : 47, 54

寅 38년생 구우일모의 기회이다. 50년생 유사한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62년생 연계시켜서 종합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74년생 가지 않은 길을 살펴본다면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8, 02

卯 39년생 부족함을 채우는 데 노력하는 편이 낫겠다. 51년생 확실히 배제하는 것이 좋다. 63년생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매우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75년생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면 쇠퇴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9, 55

辰 40년생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다. 52년생 활용만 잘 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다. 64년생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벌어지겠다. 76년생 한 번의 실행이 열 번의 한숨보다 훨씬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73, 77

巳 41년생 기본 틀도 변형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53년생 자신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일임을 알라. 65년생 굳이 내면까지 모두 드러낼 필요는 없느니라. 77년생 큰 획을 긋는 분수령이 되는 날이로다. 행운의 숫자 : 12, 62

午 42년생 열과 성을 다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54년생 가볍게 여기다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66년생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78년생 상당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빈틈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3, 13

未 43년생 제대로 인식해야만 하느니라. 55년생 왜곡이나 핑계는 병폐를 낳는 법이다. 67년생 검소함과 부지런함이 행운을 안겨다 줄 것이다. 79년생 외관의 규모까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26, 38

申 44년생 가급적 빨리 채우는 것이 좋다. 56년생 치밀한 계획 못지않게 진중한 실행이 계속 되어야만 한다. 68년생 다량의 속도 보다 소량의 완성도가 요구된다. 80년생 우연이라면 피하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63, 20

酉 45년생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좋다. 57년생 공간적 한계를 실감하리라. 69년생 가을의 결실을 염두에 둔다면 즐거운 봄날의 파종이 가능하다. 81년생 익명성을 띤 이가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9, 46

戌 46년생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절실하다. 58년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따르는 것이 좋다. 70년생 흔들림이 없도록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 82년생 묵묵히 자신의 길만 가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34, 64

亥 47년생 조용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는 이가 보인다. 59년생 긴장감을 해소하고 마음을 편하게 갖자. 71년생 상황 윤리에 어긋난다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83년생 관련시킨다면 문제점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86, 4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아나테이너' 박지윤, 방송가 종횡무진

본인 색깔 찾으려 노력…입담꾼 김구라 강용석에도 안밀려

요즘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는 '아나테이너'(아나운서+엔터테이너) 명단에서 박지윤(34·사진)을 빼놓을 수 없다.

'썰전' '100인의 선택' '식신로드' 3개의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인 그는 쟁쟁한 '예능인' 틈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는다.

차분하고 똑 부러지는 말투로 정곡을 찌르다가도 '보통 아줌마'의 모습을 거리낌 없이 보여주고, 음식 앞에서는 방송마저 잊고 '맛의 향연'에 뛰어든다. 단아한 아나운서의 모습 속에 의외의 변주들이 숨어 있다.

최근 만나본 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그동안 보여줄 기회가 없던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다는 게 그의 말이다.

"과거에는 공영방송 아나운서로 지켜야 하는 선이 있었고,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경직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편해진 모습을 시청자들이 좋게 봐 주시는 듯 해요. 그렇지만 아나운서의 틀을 깨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저 프로그램에 최대한 녹아들고, 다른 진행자와 차별화한 저만의 색깔을 드러내려고 했죠."

5년간 몸담은 KBS를 2008년 떠난 박지윤은 요즘 아나운서 출신 여성 방송인 중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썰전'에서는 김구라, 강용석 등 소위 '독한 입담꾼' 사이에서도 존재감을 잃지 않는다.

연예계와 미디어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쏟아내는 그를 보면 전문가 못지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박지윤은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에 호기심이 많아 TV와 잡지 보는 걸 좋아했다"며 "방송일을 안 했다면 그냥 호기심 많은 아줌마였을 것"이라고 웃었다.

"지금 하는 프로그램 모두 제 성향과 잘 맞아요. 제가 평소에도 수다 떠는 것과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100인의 선택'에서는 여자들과 수다 떨고, '식신로드'에서는 친한 사람들과 같이 밥 먹으러 다니는 기분이라 좋아요. '썰전'은 자유롭게 말을 쏟아내는 재미가 있어요. 제 역량대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정말 좋아요."

'식신로드'는 먼저 러브콜을 보낸 프로그램이다. 박지윤은 "매니저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PD가 마침 다른 맛집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한 내 모습을 좋게 봤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타고난 먹성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이어트를 했다는 그는 "가끔 스태프도 놀랄 정도로 먹는다"며 웃었다.

MC 한지혜, 알렉스, 방청객 100명과 호흡하는 '100인의 선택'에서는 "스스로 102명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진행자니까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동네 언니, 유치원 엄마처럼 방청객에게 다가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웃기고 털털하다는 얘길 많이 듣는다"며 "남자처럼 무뚝뚝한 면도 있지만 살림을 좋아하고, 꼼꼼한 면을 보면 천상 여자다운 면도 있다"고 자신을 설명했다.

자신의 색깔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까지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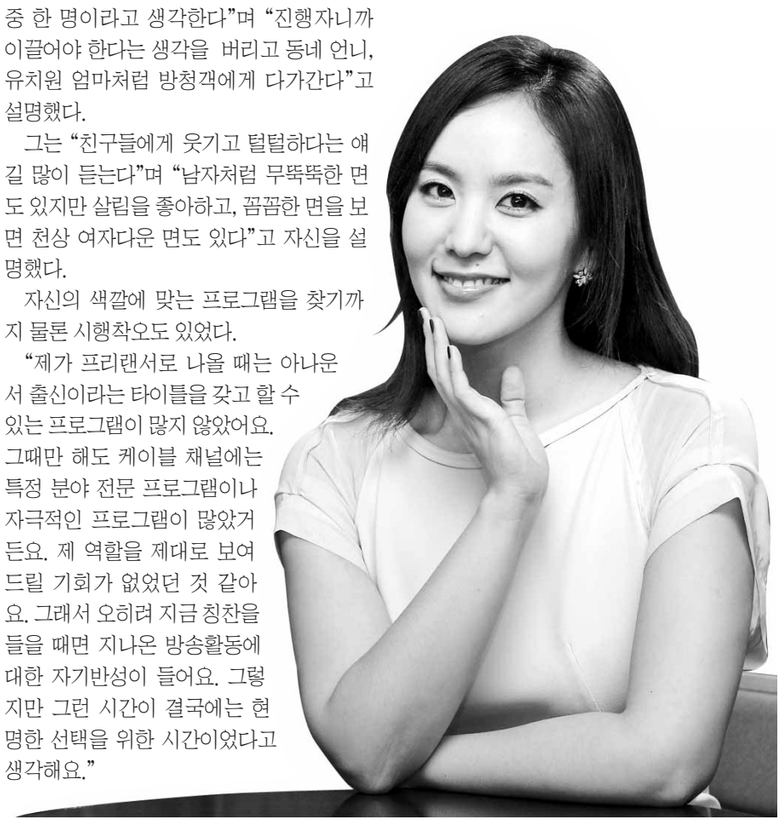
"제가 프리랜서로 나올 때는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케이블 채널에는 특정 분야 전문 프로그램이나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많았거든요. 제 역할을 제대로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칭찬을 들을 때면 지나온 방송활동에 대한 자기반성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결국에는 현명한 선택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내와 엄마가 되는 경험은 진행자로서 공감의 폭을 넓혀줬다.

"결혼 전에는 얘기하지 못했던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전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를 존경해요. 특히, 전업주부들은 정말 대단하죠. 아이 돌보는 데 전념하는 게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힐링'이 되는 시간이에요."

박지윤은 "내게서 KBS란 세 글자가 이제 흐릿해진 것 같다"며 "방송사 직원의 틀은 벗어버렸지만 방송인으로서 내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담담히 말했다.

/연합뉴스



할리우드 대작 공습…박스오피스 점령 예약

'아이언맨3' 3일만에 180만명 기록

'아이언맨3'이 개봉 3일만에 18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돌풍을 예고하자 한국 영화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들이 '아이언맨3' 개봉을 기점으로 잇달아 국내에 상륙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할리우드의 박스오피스 점령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아이언맨 3'는 전날 전국 1368개 상영관에서 89만4402명의 관객을 동원해 누적 관객수 180만4278명을 기록했다. '아이언맨 3'는 지난 25일 개봉 첫날에만 전국 1228개 상영관에서 42만3235명(시사회 포함)의 관객을 끌어모아, 올해 국내 개봉영화 중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국내 영화 시장에서 재기를 노리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개봉도 줄줄이 예고된 상태다. 일단 '스타트렉:더 비기닝'의 속편인 '다크니스'가 다음 달 30일 개봉한다.

여기에다 오는 6월 개봉 예정인 '맨 오브 스틸'은 원조 히어로 슈퍼맨 시리즈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줄 예정이다. 윌 스미스 부자가 주연한 '애프터 어스'도 당초 계획보다 한 주 앞당긴 다음 달 30일 국내에서 개봉한다.

반면 지난 1분기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를 본 관객수가 역대 분기별 기록 중 최대치인 3845만 명을 달성하는 등 호황을 누렸던 한국 영화는 이달 들어 주춤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71세 여고생의 수능 도전기

당신이 만드는 신데렐라TV(채널A TV·밤 11시)=시청자들의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영상을 발굴, 공개하는 신데렐라TV.

이번 회에는 71세 여고생 할머니가 등장, 조금은 특별하고 각별한 수능 도전기를 소개한다. 할머니와 패널들 간의 막간 퀴즈쇼도 준비돼 있다.

SNS를 떠들썩하게 한 주인공, 추천수 67만건을 기록한 할아버지의 감동스토리도 소개된다.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가고 싶다는 사연을 SNS에 올린 할아버지. 그는 로맨틱한 스토리로 네티즌들의 큰 반향을 일으키며 화재의 주인공이 됐다.

그 주인공의 숨겨져있던 진짜 이야기가 공개된다.

소비에 갇혀 버린 현대인의 삶

다큐 프라임 '인간탐구 욕망 호모 컨슈머리쿠스-제1부 내가 사는 이유'(EBS TV·밤 9시 30분)='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며 살아간다. 소비는 어느새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만큼이라 우리 삶에서 중요한 행위가 됐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소비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현대인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소유하려 하고 소비하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소비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 다큐 프라임이 소비에 갇혀 버린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고 나와 당신 그리고 공동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소비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한다.

마영부 신제품 기획 성공할까?

월화드라마 '직장의 신'(KBS2 TV·밤 10시)='당신의 인사고과는 안녕하십니까?'

Y.JANG 영업팀의 인사고과 시즌이다. 이를 의식한 마영부 직원들의 행동이 평소와는 남다르다. 모두 갑라인을 타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황 부장은 일주일 안에 제출할 신제품 기획을 지시한다.

규직과 정한은 천연 자염 생산업체인 '옹자염'을 찾아가보기로 한다. 6시 퇴근을 조건으로 규직, 정한과 함께 '옹자염'이 있는 섬으로 향한 미스 김, 과연 이들은 오늘 안에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올 수 있을까?

항상 긴 정장바지, 무채색의 비즈니스 수트, 망사 머리끈과 124개의 '잡다한' 자격증으로 무장한 자발적 비정규직 '미스 김'이 이번 회에서는 무슨 활약을 할지 기대된다.